

“열린 공간 매력적...콘텐츠 늘리고 ‘창작의 공장’ 돼야”



어린이와 가족들이 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이 공간에는 문화전당 개관 첫날과 이튿날 모두 1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인기를 끌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화전당 개관 관람객 반응

지난 4일 개관한 문화전당 건물과 개관 콘텐츠를 둘러본 문화 전문가와 시민들은 문화전당이 추구하는 비전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시 콘텐츠(전시·공연, 운영프로그램 등)가 부족하다는 점과 화장실, 안내표지판 등 관람 편의시설은 확충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문화 콘텐츠·산업 일으킬 기폭제 기대 출·입구 안내판·편의시설 부족 아쉬워

▷관람객 반응= 전문가들은 문화전당 공간과 콘텐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타 문화공간과 차별화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문화전당은 어떤 문화행사나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엄청난 규모의 공간을 콘텐츠로 채우려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며 “문화전당을 애초 설립 의도대로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하는 ‘창작의 공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충고했다.

▷관람 편의시설 아쉬움= 개관 첫날부터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어린이문화원에서는 ‘화장실 찾기 전쟁’이 벌어졌다. 화장실 위치도 표시되지 않았을 뿐더러, 공연장 인근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2개와 대

변기 2개뿐이었기 때문이다. 최창규(43·광주 시 서구 풍암동)씨는 “공간은 넓은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기가 힘든 구조”라며 “어린 아이들은 용변이 급하면 빨리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데, 위치 안내와 화장실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화전당 공간을 쉽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정표나 안내표지가 부족한 탓에 출구와 입구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문화전당이 지하철 문화전당역과 이어져 있음에도 지하철역 방향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없었고, 출·입구 안내 표지판도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다.

음식점, 카페 등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시민들이 피아빌 아래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소음 때문에 관람객들의 휴식과 관람에 방해가 됐다.

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와의 차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관람객도 적지 않았다. 김선희(48·광주 북구 두암동)씨는 “문화전당의 큰 규모에 비해 볼 수 있는 작품은 많지 않았다”며 “일부 작품은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이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공공미술로 세계 랜드마크 만들 것”

김승덕 감독 공간 디자인 계획 발표 아시아·지역 작가 참여 ‘예술 상품점’ 마련 문화광장, 영화·콘서트·비디오아트 공간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에 랜드마크 기능을 할 국제적인 유명 작가들의 공공미술 작품이 설치된다. 아시아 작가들과 광주·전남 지역 공예가들이 작품을 공존시켜주고 전시·판매하는 예술 상품점도 들어선다. 프랑스 현대 미술센터인 르 콘소시엄(Le Consortium)의 김승덕(사진) 큐레이터와 프랑크 고트로 설립자는 지난 5일 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미술 작품 설치 계획과 예술 상품점 구축 등 공간 디자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화전당의 공간 디자인을 맡은 공동 감독이다.



카메라 옵스큐라에서 영감을 얻어 유리하고 거울을 사용하여 거대한 행상을 표현했다. 문화전당에는 지역 장인과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신 개념의 예술상품점도 들어선다.

이들이 진행하는 문화전당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하나는 랜드마크가 될 조형물 설치다.

중국의 1세대 작가인 왕두(Wang Du)씨는 최근 조각품 ‘빅토리’(Victory)로 전당의 희망과 승리를 표현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7m 높이의 이 작품은 손가락으로 ‘V’ 포즈를 하고 있으며, 민주평화교류원 옥상에 설치됐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대미술 작가 이불씨의 작품 ‘무제(Untitled)’는

지역 장인과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신 개념의 예술상품점도 들어선다.

민주평화교류원 지하 2~3층에 940㎡ 규모로 들어서는 예술상품점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아트샵과는 달리 지역 장인과 작가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작품도 판매한다.

전당 내 아시아문화광장은 연중 영화나 콘서트, 비디오 아트를 보여주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최첨단 3차원 음향 시스템과 멀티미디어 아트 시스템이 도입된다.

김승덕 문화전당 디자인 공동감독은 “문화전당 내 아시아문화광장은 지역 축제와 국제행사, 공공행사, 노천 시장 등 다양한 이벤트로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는, 광주 생활문화의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추석 이산가족 상봉 남북 합쳐 200명선

시기는 내달 초·중순...오늘 적십자 실무 접촉

남북이 지난달 25일 판문점 고위급접촉에서 합의하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남북한을 합쳐 20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상봉 장소는 금강산 면회소가 유력하며, 상봉 시기는 다음 달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오는 7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의 규모와 장소, 시기 등을 논의하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린다고 6일 밝혔다. 남측 수석대표는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용위원회(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북측 수석대표는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다. 정부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북측이 주장하는 금강산 상봉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하는 것이 서울 혹은 평양 소재 호텔에서 상봉 행사를 하는 것보다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설날 계기 이산가족 상봉도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뤄졌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도 작년 2월 행사 때와 유사한 남측 100명, 북측 100명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될 예정인 금강산 면회소는 그 이상의 상봉 대상자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상봉 행사를 개최하려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상봉 대상자 확대를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 전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우려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외에도 ▲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 이산가족 사진 교환 및 화상 상봉 ▲ 이산가족 고향 방문 ▲ 상봉 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북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초대 광주전남연구원장 최종후보 허성관씨

전 행정자치부 장관

초대 광주전남연구원장 최종후보자에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선정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4일 광주시 공무원교육원 회의실에서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원장 최종후보자 선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18명 중 16명이 참석, 출석이사의 합의추대 의결을 거쳐 원장공개모집 및 선임규정 제19조에 따라 허 전 장관을 최종후보자로 선정했다.

허 전 장관의 최종 임명 여부는 광주 시의회와 전남도회의의 공동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정된다. 인사청문위원회



시·도의원 각각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청문회는 연구원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된다.

이번 재공모에는 허 전 장관 이외에 전 광주시 부시장과 민간 기업인 출신과 외교관, 교수 출신 등 모두 12명이 응모했다.

최종후보자로 선정된 허 전 장관은 동시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해양수산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광주과학기술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201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수시	정시
인문	신학과	30	19	
	국제한국어교원학과	5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7	3	
	유아교육과	17	3	
예능	음악학과	10	5	
	실용음악학과	15	5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5. 9. 9(수) ~ 15(화) · 전형일 : 2015. 10. 2(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5. 12. 24(목) ~ 30(수) · 전형일 : 2016. 1. 5(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2015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171)	광주교육대학교(1271)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5. 9. 4(금) 09:10 (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5. 9. 4(금) 14: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5. 9. 5(토) 09:10 (고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5. 9. 7(월) 14:10 (중급반) ·월. 목. 09:20반 2015. 9. 7(월) 19:00 (특급반) ·목요일 오후반 2015. 9. 10(목) 14: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5. 9. 12(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5. 8. 3(월)~9. 5(토)	2015. 8. 3(월)~9. 12(토)
수업기간	2015. 9. 4(금)~2016. 2.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5. 9. 7(월)~2016. 2. 2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예강반 18: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3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원 원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원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교과목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부특기회 부여)	·1,2,3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원 원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원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교과목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부특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650-3582~4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620-4243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eue.ac.kr/